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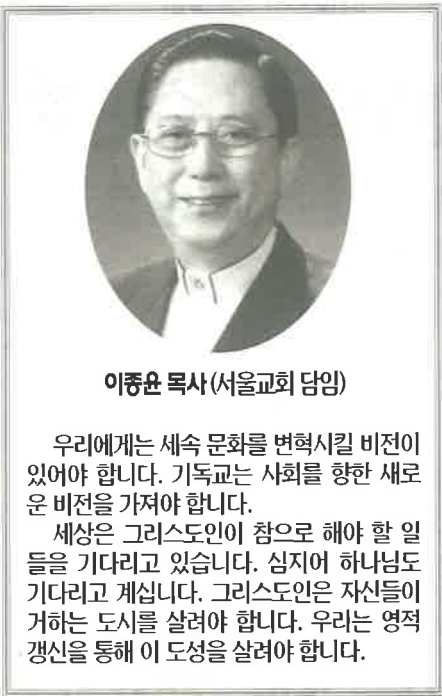


누가 이 타락한 도시를 살릴 것인가?

(느헤미야 11장 1절 - 12장 26절)

금세기의 두드러진 추세 중 하나는 도시화 현상입니다. 2000년에 세계인구는 60억이 넘었고, 이들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합니다. 200년 전만 해도 세계인구의 2.5%만이 도시에 살았고, 1970년엔 40%가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90%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전 세계에 175개나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빈약한 인구를 증가 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대도시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제는 그 성이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족을 오히려 신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느7:4).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우리에게는 세속 문화를 변혁시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거하는 도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갱신을 통해 이 도성을 살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정부조직을 가졌습니다. 아무나 아무 데서 정착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가급적 조상이 살던 고향에서 살도록 했습니다(11장).

(3)자원하여 참여한 자들을 통해 백성들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다

백성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2절).

또한 제비 뽑힌 자들도 있었습니다(1절).

(4)종교적 이유로 거주하는 이들이 있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고향에 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 중심지이므로 종교인들이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1)도시를 버리지 말자

도시를 버리지 말자는 말은 농촌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도시는 세속과 죄로 완전히 점령 당해 전도가 포기된 상태입니다. 반면 심야전도는 효과적입니다.

(2)도시 전도에 거점이 될 교회들이 있어야 한다

모두가 교외나 주택가로만 빠져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공동체를 도시 근처에 만들므로 도시 전도의 전략을 구가해야 합니다.

(3)성경적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한다”(미6:8)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직, 절제, 사랑 실천 운동이 불 같이 일어나 도시를 물들여야 합니다.

(4)비전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세속 문화를 변혁시킬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낙태, 도색 잡지, 마약, 이것들과 누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비전2020운동, 기독교 교도소 설립 등 기독교는 사회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해야 할 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이 거하는 도시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갱신을 통해서만이 이 도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신이 먼저 영적 갱신을 하므로 이 도시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왜 예루살렘엔 거민이 희소했나?

(1)142년 동안 성벽없이 지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전에 그 곳은 방어벽이 없어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가족, 짐승, 곡식 등을 언제 잃을지 몰라 예루살렘에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2)도시병이라 불리우는 노출이 용이했다

도시는 상대에게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고, 그래서 쉽게 파괴되므로 예루살렘에는 거민이 희소했습니다.

이 때 지도자 느헤미야는,

① 지도자들로 하여금 새로 성벽을 쌓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했습니다.

② 제비를 뽑아 정책적으로 백성들을 배치했습니다.

세계선교와 도시 선교를 위해 우리도 이와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2.도시 부흥 전략 분석

느헤미야 11장의 명단과 도시 이름들은 3, 7, 10장에 있는 것보다 흥미롭지 못하고 더 지루합니다. 그러나 이 명단은 느헤미야의 놀라운 전략을 보여 줍니다.

(1)귀향민을 정착 시켰다

예루살렘 갱신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귀류민 정착입니다. 11장은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의 이름으로 채워집니다. 유다의 두 가족(4 - 6절)과 베냐민의 3가족(7 - 9절)이 나오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들, 성전 종들, 공무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10 - 24절).

12장 1 - 26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도자들과 가족들의 명단입니다. 이때 남자 장정만 3,044명이었고 아마도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를 합하면 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거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전체 유대인 수가 약 10만 명이었으므로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인구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2)조직을 통해 백성을 정착시켰다

13차 김치신학세미나 시작되다

5일(화)부터 10일(주)까지 특별새벽기도회

올해로 열세 번째가 되는 KIMCHI(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 신학세미나가 오는 7월5일부터 10일까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올해는 세계개혁신학회 회원 18개국 100여명을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초청함으로 열리게 되었다. 금번 KIMCHI 세미나는 "다원적이며 국제적인 세계에서의 기독교의 정체성"을 주제로 네덜란드, 미국, 독일, 영국, 헝가리, 호주, 남아공화국, 인도네시아, 케냐,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많은 신학

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세미나의 목적은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진정한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것에 있다. 무엇보다 이 기간동안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신학자들의 영성을 깨운다.

세계선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이미 세계로잔위원의 인정을 받고 외국의 교회 지도자와 신학자들을 초청하여 상호 신앙과 신학의 영향을 주는 KIMCHI 신학세미나는 지금까지 81개국에서 510명이 참여하였다.

2005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7월13일(수)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의 모든 일정이 확정되었다.

금번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는 7월13일(수) 대학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부서별 일정에 따라 진

행 된다. 많은 학생,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자세한 부서별 일정을 다음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서	주제	일정	장소	강사
유아부	하나님 나라와 문화	7월21일(목)-22일(금)	서울교회	이종운, 박금실
유치부	하나님 나라와 문화	7월21일(목)-22일(금)	서울교회	이종운, 이규정
유년부	하나님 나라와 문화	7월21일(목)-22일(금)	서울교회	이종운, 이태훈
초등부	하나님 나라와 문화	7월21일(목)-22일(금)	서울교회	이종운, 이성득
중등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7월25일(일)-27일(수)	인천연수원	이종운, 윤영국
고등부	Change yourself, change the world	7월25일(일)-27일(수)	진위고등학교	이종운, 오정식, 박광일
대학부	전도하는 대학부, 교회의 소망	7월13일(수)-16일(토)	철원담터수양관	이종운, 김재진, 서명철
청년부	청년의 때에	8월15일(일)-18일(목)	강원추양수양관	이종운, 오정식
신혼가정부	기도하는 사랑의 가정	8월15일(일)-17일(수)	알프스글로벌펜션	이종운, 이규정
장년부	우리가 먼저 바로 서자	7월15일(금)	서울교회	이종운, 조종남, 김운호
사랑부	하나님 나라와 문화	7월17일(주일)	서울교회	이종운, 이용식
예배다부	하나님 나라와 문화	8월1일(일)-3일(수)	꿈꾸는사람들(영풍도)	이종운, 임규현
디아스포라부	신앙의 공동체로 통치자	7월15일(금)-16일(토)	서울교회	이종운, 윤영국, 박광일

2005 농촌전도대 조직확정

2005년도 상반기 전도시상

2005 농촌전도대 파송 및 봉사를 위한 조직이 확정되었다.

- 지도: 이규정 목사
- 협력지도: 윤영국 오정식 박광일 박금실
- 대장: 윤찬오 장로
- 총무: 이찬호 부총무: 김재근
- 서기: 원용범 · 회계: 양춘경
- 전도분과장: 김금준
- 공육찬양분과장: 이동만
- 시설분과장: 오유식 · 홍보분과장: 김규태
- 의료분과장: 정동호 A팀: 박동원 B팀: 김영주
- 이미용분과장: 김종운 윤숙희
- 취사분과장: 주경자 이해순

서울교회는 금년 상반기의 전도결실을 결산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한 성도들에게 작은 감사의 표시를 하므로 격려하기로 했다. 전도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으며 시상기준은 전도 5명 이상이며 기준에 미달한 성도를 위하여 하반기(연간)시상때에는 상반기 전도지수를 포함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전도대상 박이선(이해순): 79명
- 전도상 김찬진(최현인 김민희 구귀순): 28명
- 김동진(김미성): 15명 · 심명숙: 12명
- 김은순: 12명 · 백영자(박영숙 김영옥): 10명
- 김 옥(남현주): 9명 · 장정화(이창희): 7명
- 김민희: 7명 · 임명숙(김혜중): 6명
- 김재진: 5명 · 오정수: 5명
- 강석우: 5명 · 이현주(곽미숙): 5명

맥추감사절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 찬양예배시간에 특별순서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된다. 맥추감사절은 올해 첫 밀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오늘 I II III부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을 갖으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고 찬양예배시간에는 교회학교 특별순서로 교육 1국(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에서 찬양과 울림으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성도들의 기도와 동참을 바란다.

새번역 주기도 사도신경

기독교 성결교단 총회에서 승인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새로 번역한 주기도 사도신경이 지난 6월30일 기독교 성결교단 총회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교회가 헌의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특별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번역안을 한국교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연합기구에 청원하였고 각각 특위(위원장 이종운 목사)를 구성하여 오랜 동안 기도와 연구 끝에 내놓은 새번역안이 교단 총회로 넘어가 첫 번째로 승인된 것이다. 대부분의 교단 총회가 9월에 열리고 있어 각 총회 결정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회가 하나의 주기도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겠다.

성경필사 막바지에 접어들어

미참 성도들은 오늘 중 신청확인해야

교회 헌당에 맞추어 봉헌하게 될 서울암송필사성경의 필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금주에는 차주의 일반 성도 참여가 마감되고 3,4주차에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필사가 이어져 7월 말에는 1차 필사를 완료하게 된다.

필사 위원회에 의하면 필사신청을 한 후 원고를 받아가고도 제때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정확한 참여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시 부득이 참여를 무효화 하고 다른 성도들로 대체 할 것이라고 한다.

만민에게 전도

청년부 지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동익(청년부)

"총동원 전도 주일, 150명 출석 감사합니다. from 오정식 목사..." 지난 월요일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라고 속으로 탄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원들은 서울교회와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 그리고 총동원 전도 주일 150명 참석이라는 기도채목을 붙들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미 흥해작전 몇 주 전부터 수요 기도회와 릴레이 금식기도로 준비했고 흥해작전 기간 중에도 매주 토요일 청년부 총동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흥해작전을 위한 수요기도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잠깐 들기도 했지만 흥해작전을 시작하고 보니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은혜롭고 값진 시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저였지만 이번 흥해작전은 저희를 주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도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총동원 기도회의 날로 정했던 흥해작전 마지막 토요일에는 60여명의 청년부원들이 그 새벽 청년부 집회실에 거의 꽉 찰 정도로 많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6월 26일 총동원의 날, 청년부실에는 정확히 150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의 합심된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청년부의 기도로 인하여 작게는 우리 청년부가 크게는 우리나라가 온전히 변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청년부 지체들은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조차 귀 기울여주시는 저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추모의 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

이영자 권사(8교구)



고강중심 집사님

헐벗고 굶주린 자를 대접한 자가 곧 자신을 대접한 자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4년 전 서울 교회가 세워질 때 거할 곳이 없던 하나님의 양들에게 지붕이 되어주시고 날개가 되어주셨던

강중심 집사님께서 지난 6월 2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때를 기억하며 강 집사님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논현동에 새롭게 건물을 짓고 자신의 전 부인 건물을 서울교회에 선뜻 예배처소로 허락하신 강 집사님, 누가 뭐래도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 곳 논현동에 서 서울교회는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강 집사님은 전인화 권사님과 더불어 네 분 아드님 가운데 두 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시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그 두 분은 후천적으로 청신경이 약해져서 마침내 청각장애우가 되었고, 지금은 청각장애우들의 목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전 권사님은 농아가 된 세 아들들을 키웠던 시간들을 슬픔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더 많은 청각장애우들을 위하여 최초로 청각장애우 부모회를 조직하여 6년간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지금도 애바다부에서 청각장애우들의 어머니가 되시어 그들을 섬기며 위하여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여느 부모가 그렇듯 장애 자녀들을 키우시며 남모르게 흘렸을 안고의 눈물을 우리는 머루어 짐작할 뿐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세월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강 집사님과 전인화 권사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신 분입니다.

이제 그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품에 안기셨으니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신 한 번 강 집사님의 죽음을 애도하며 서울교회는 당신의 그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정환 (대학부 82도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16:9)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 변화받은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신학대학을 지원했다가 낙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만, 그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일반대학에서 장차 신학공부를 위해 독일어를 전공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방황도 하고 도망도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찬양 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에 찬양사역자로 섬기게 해 달라는 소망이 생겨서 전주 창작 CCM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고 그를 결성하여 앨범을 내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유명 찬양 사역팀으로 진출한 동료들과는 달리 제게는 기회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단기연수 과정에 선발되면서 다시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늘 제가 범해온 잘못은 모든 일을 계획함에 있어 "내가"라는 생각을 놓지 못하였던 것인데, 하나님은 저를 단련시키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우회하여서 이끄시며, 천천히 "내가"라는 생각과 제 주장을 지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통 상처 났던 마음은 어느새 치유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심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심,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는 큰 은혜를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암송, 필사 참가일정표

(A조: 1~7교구, 장소:402호)

	7/4(월)	7/5(화)	7/6(수)	7/7(목)	7/9(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유명석(4) 하미영(4) 김영숙(1) 류기경(1) 이옥심(1) 류지현(1) 이주희(5)		이명아(1)	이승민(4)	
2부 (오후2시~ 오후5시)	정은순(1)	박동호(1)	한창완(6) 서영세(6) 강영순(6) 장부자(4) 전정숙(3)	장인수(7) 윤도희(7) 이경자(5) 강신태(7) 구귀순(7) 남영주(7) 정희진(7) 고화경(정) 안재희(정) 양은희(정) 오경례(정) 이선호(정) 임승환(정) 조영자(1) 박지연(대) 오수주(대)	
3부 (오후7시~ 오후10시)	홍일성(1) 홍분순(5) 민희(대)		김성규(대) 최은기(대) 한희연(대) 한대석(대) 김은혜(대)	정희진(정) 남미진(대) 이인영(대) 최성(대) 하정(1)	

(B조: 8~14교구, 장소:202호)

	7/4(월)	7/5(화)	7/6(수)	7/7(목)	7/8(금)	7/9(토)
1부 (오전9시~ 오전10시)	김현숙(13)	김진희(11) 왕재웅(11) 황지은(13) 진교숙(13)	장창숙(14) 김석범(12)		이미송(13) 박현숙(13) 김미성(13) 유승기(13) 양미정(13)	박순자(12) 허숙(11) 이은재(11) 하태현(14) 김창숙(14) 김화순(14) 강원배(12)
2부 (오후2시~ 오후5시)	이현승(13) 백애덕(13) 진혜진(정) 이주현(정)	정용욱 심재울	이민호(12) 김희(12) 이일영(12) 이선아(12) 김형택(12) 임인자(12)	신현이(12) 이남경(12) 이호식(12) 민마리아 (12) 전수자(12) 유신(9)	이정연(12) 정기동(11)	양혜선(10) 이완선(11) 배우진(11) 황선영(14) 최미현(10) 최주미(10) 김성신(12) 김신영(12) 오주명(12) 황정숙(12) 송혜숙(11)
3부 (오후7시~ 오후10시)	박동희(13) 박영선(13) 진경남(13)	에완식(11) 송금자(11) 이아영(11) 이현우(13) 편혜정(13) 김태봉(정) 오세현(정) 유세걸(정) 정기동(11) 김옥수(13)		강하람(13) 강윤경(13) 황지혜(13) 윤혜연(13)	송미라(14) 김성영(정) 김수영(12) 신동기(12) 한상준(12) 유은경(8) 한명자(13) 박상엽(13)	안분선(10) 김진희(10) 김인희(10) 이상태(12) 방승희(12) 우스라(12) 우보라(12) 우림찬(12) 김재숙(13) 이경화(13) 심정(13) 심송(13) 이미현(정) 김용기(13) 장찬진(14) 이성현(대) 김지형(대) 김민욱(대) 박수현(대) 강혜영(13)

**6월
새가족**

김숙자 강미영 권승현 권영기 권오규 권오연 권윤지 권혜진 김경희 김나래 김동섭 김민섭 김선자 김승모 김연주 김영일 김요섭 김윤숙 김이영 김인선 김재중 남상경 문정호 박권준 박남숙 박미용 박성우 박소연 박순이 박주영 박지수 박지혜 방효철 배준길 백상운 서형진 송나현 송희창 신대식 신민정 심선희 엄은주 엄정순 여수미 여창재 우점희 윤현미 이강혜 이수민 이수완 이승현 이은혜 이정임 임종민 임치복 임현우 장상순 장윤식 장인복 장지은 정혜린 정혜원 조기선 조은지 조창우 차영주 채여숙 최근보 최나래 최승환 최영란 최영철 최정훈 피은경 한승희 한정순 홍지연 Linda Cahil

**조남혜 선교사
일시 귀국**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남혜 선교사가 지난 주간 일시 귀국을 하였다. 조 선교사는 방글라데시 빈민촌 사역을 주로 하는 사랑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다. 조남혜 선교사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간단한 선교보고를 한다.

**장년부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7월 15일(금) 오후 6시부터
주제: 우리가 먼저 바로 서자



박정선 장로
(교역5국장)

2005 장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15일(금)에 오후 여섯시부터 열시까지 서울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서울교회 교인 3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모든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련회의 강사로는 이종윤 목사님, 조종남 박사님(전, 서울 신학대학장), 김운호 목사님을 모시고 갖게 되며 이날 저녁은 연합다락방 모임을 수련회로 대체하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로서 서울 교회 성도님들 전원이 참석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수련회의 여름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제5기 단기선교 위한
미니 바자 개최**

8월1일부터 8일까지 있게 될 동아시아 단기선교를 후원하기 위한 미니 바자(책, 장난감, CD 등)가 오늘 8층에서 열린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있기를 바란다.

수화교실 개강

7월10일부터 수화교실이 개강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요청한다. 수강신청은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하되 강의 시간은 매주일 오후 1시부터 50분간이다. 신청은 603호에서 접수한다.

**농촌전도대
기증품 접수**

농촌전도대는 조직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도대에서 사용할 기증품을 접수한다. 문의는 사무국으로하기 바란다.

등정

- 전시회: 13교구16다락방 김정미성도 6.30-7.6일 서울코엑스지하 1층 호수길 특별전시장.
- 주간식당봉사: 안드레 남선교회(7월3일) 베드로남선교회(7월10일)

금주의 식사:

- 김광철 집사주의현 집사
- 배재송 집사 임본도 권사 가정
-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 기독교 TV - (http://www.cts.tv) · 중국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3차 김치신학세미나가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2. 새로 번역된 주기도 · 사도신경을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도록
3. 세계를 교구로 삼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되도록
4. 서울 암송 · 필사성경 제작이 순조롭도록
5. 선택받은 백성, 제사장의 나라 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I부 오전 9시
예 배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 오	I부 오전 11시
예 배	II부 오후 7시
금 오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오시는 길

